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제주 세몰이

이준석 “4·3 폼페이 시도 단호히 절연할 것”

제2공항 “제주도정 방향 공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사진) 전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 “제주 4·3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 4·3에 대해 폼페이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4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 후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찾아 당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 등 우리당이 놓쳐서는 안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논의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당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또 이 후보는 일부 보수세력의 4·3에 대한 역사 왜곡 발언을 놓고 “우리당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폼페이 발언이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며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진 보수 유튜브 등에 대해 완벽히 절연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대해기자

나경원 “문 대통령 압박해 제2공항 추진”

“국토부·환경부 핑퐁게임 잘못”

나경원(사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서로 결단을 미룬채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조속히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제2공항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

나 후보는 이날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한 당원의 주장에 대해선 “제주도는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앞으로의 방향을)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나 후보는 다음 대선 때 국민의힘의 승리하기 위해선 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후보 단일화를 이끌고 대선을 진두지휘 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 야권 후보를 통틀어 하는 등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정치를 좀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말해, 4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낸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홍문표 “4·3특별법 보완 9월 처리 최선”

“민주당 저지하려면 경륜 중요”

홍문표(사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제주4·3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의 위자료 지급액 등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아 발의될 이른바 ‘제주4·3특별법 보완 입법’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제주4·3평화위원회를 찾아 참배했다”며 “4·3평화재단 관계자

이날 홍 후보는 당 사무총장 등을 맡은 정치 경험과 경륜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80석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데, 부족하지만 나는 대선 만 5년 치렀다”며 “또 나를 제외한 나머지 당 대표 후보 4명은 당 살림을 맡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이 선거 전략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무리를 전부 적폐로 몰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20~30년 전 재판도 다시 뒤집어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도시계획위 위원 선정 논란

이권개입 차단 명분... 도내 건축사 공모서 제외 제주개발사업 다수 관여 타지방 건축사는 선정 서울지역 건축사 2명 연달아 3연임 위촉 이례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 선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건축사는 이권개입 차단 명분으로 위원 공모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제주지역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지방 건축사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 지역 건축사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달아 3연임을 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5월에 선정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지난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이달 초 위촉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설계, 경관·조경, 문화·관광·교육, 건축·주택, 교통·도로, 환경·위생, 방재·안전, 토목, 에너지 등 9개 분야이며, 위원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들 위원은 도시계획 전문성 능력 위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도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제주지역 건축사는 건축분야 위원 공모에서 배제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2항 4호에 ‘민간 전문가 위촉시 도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필요시 타 지역 현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현업 종사자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서울지역 A 건축사는 제주에서 많은 대형 개발사업(버차야리조트 개발사업·이랜드 에 월곡제문화 복합단지·삼태봉유원지

개발사업·우리들리조트 개발사업·신화역사공원·지귀 개발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협회 차원에서도 협조해 왔으나 이번 건축분야 위원 선정은 제주도 주장하고 있는 선정태서는 안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선정됐다”면서 “제주지역 건축사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 B·C건축사 3연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연임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도 오래 고이면 썩듯이 힘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납득할 만한 선정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선정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위원 선정이 문제가 안되도록 위원 관련 사업분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형 ‘웰니스 관광 상품’ 발굴 총력

여행 패턴 ‘안전·힐링’ 부각 핵심 산업화 위해 정책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웰니스 관광’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웰니스 관광 상품 발굴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최근 제주여행의 패턴이 개별여행, 가족여행 등의 소규모 여행 및 ‘안전’과 ‘힐링’을 중시하는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어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의 연평균 성장

률은 전체 관광 성장률(3.2%)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관광업계와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형 웰니스 관광에 대한 사회적 반을 마련하고, 제주형 웰니스 4대 관광분야(자연·숲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거움)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과 일상으로의 회복’ 등에 도움이 될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를 계절(봄철 제외)별로 15선(총 45선)을 선정해 언론홍보와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웰니스 관광 생태계 육성 및 제주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각종 사업발굴과 함께 홍보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5월 27일 웰니스 숲 힐링 주간 ‘서귀포 치유의 숲 웰니스 명패리기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했으며, 도내·외에서 행사 참여 신청자가 쇄도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특히 5월 30일 미국의 유명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에서 팬데믹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이들이 한국의 휴식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제목으로 치유의 숲 웰니스 명패리기 행사가 소개되는 등 해외에서도 제주 웰니스 관광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웰니스 관광인증을 통해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품질제고와 홍보지원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제주 웰니스 사업체의 체계적 조사와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고대리기자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모듬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문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시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봉, 금금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문,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재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